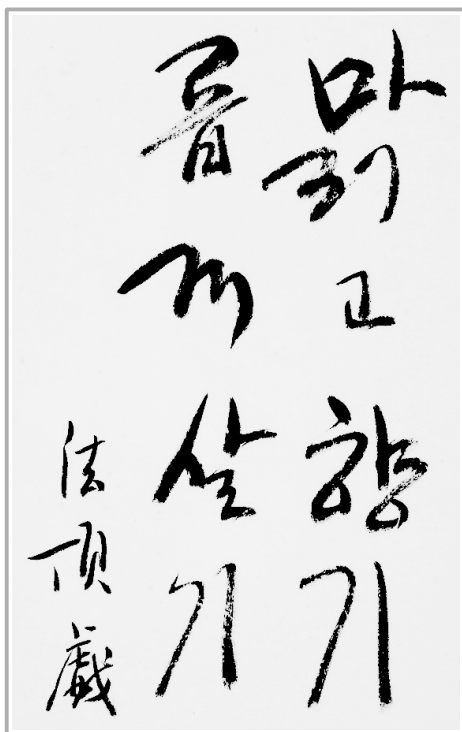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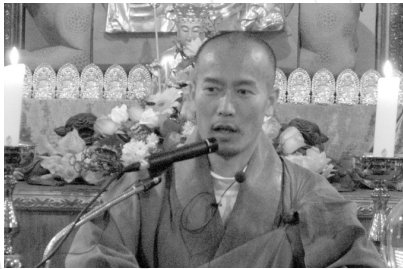


지역 순회법회

“신임 이사장 덕현스님, 대구 지부 초청 강연회”

- 제4회 맑은 세상 한마당 대구 나눔잔치 -

11.26(금) 대구 프린스 호텔 2층 리젠시홀 (Regency Hall)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1996년 5월 22일 창립 후, 그동안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회원 1천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2008년 만촌동에 자체 신사옥을 마련한 대구모임은 이번 이사장님의 초청강연회를 계기로 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 1부 : 오후 5시 30분
제4회 맑은 세상 한마당 대구 나눔잔치 (초청공연 등)
- ◆ 2부 : 오후 6시
이사장 덕현스님 초청 강연
- ◆ 3부 : 오후 7시 20분
저녁 식사 및 화합마당
-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 (053)753-8883
대구 프린스 호텔 (053)628-1001 / 대구시 남구 대명2동 1824-2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0 / 11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범정	4	진정한 아름다움
이달의 법문 / 덕현	10	행복
생명갈림 / 우화중	15	생명, 삶, 그리고 정치와 화쟁
산골만화 / 정태경	17	누더기방
채식으로 세상보기 / 이성학	18	채식의 개념과 단계적 채식
생태 돌보기 / 최원형	20	낙엽, 그 비율의 미학
맑고의 나눔현장 / 김광수	24	작은 정성들이 모이는 곳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모이라	28	길상사·맑고 향기롭게 템플라이프
수행하는 사람들 / 청정심	29	내 안에도 꽃은 피는가
나누는 기쁨 / 각 봉사모듬	32	10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37	서울모임
	42	부산, 대구, 경남, 광주모임
여기는 길상사	45	11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이런저런 얘기	48	김치가 금(金)치인 달!

표지사진 : 法頂스님 禪墨展 중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0년 11월 1일 발행 / 통권 189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어윤현 / 편집장 이성학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천 / 인쇄처 계명문화사 / 부산모임:(051)898-2672~3 / 대전모임:(042)823-0770 / 경남모임:(055)266-0170 / 광주모임:(062)236-3129 / 대구모임:(053)753-8883 / <http://www.clean94.or.kr> E-mail: wlotus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kilsangsa@hanmail.net



진정한 아름다움

法頂 (스님)

시월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산과 들이 아름답게 물 들고, 단풍 구경 가는 사람들이 휴게소마다 넘치고 있습니다. 번잡한 일상사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을 찾아나서는 일은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 삶에 아름다움이 없으면 너무 삭막하고 건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돈과 관계된 일에만 눈을 파느라고 가장 내밀한 삶의 영역인 아름다움을 등지고 삽니다. 아름다움이야말로 삶의 기쁨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목입니다. 아름다움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들 삶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은 아름다움이 그 삶을

받쳐 주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봉은사에 있을 때 무슨 글을 읽다가 자극을 받아서 백자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사동에 가서 아는 사람을 통해 옛 항아리를 하나 구했습니다. 약간 금이 갔지만 며칠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밤에 자다가도 별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거기 항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항아리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게 아니고 남도 갖고 있으니 나도 하나 갖고 싶다는 욕심에서 가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남이 가졌다고 해서 충동으로 가지려고 들면 그런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도 보는 눈과 투명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다면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곤지암 보원요에서 유약을 전혀 바르지 않고 천연 그대로 구워 놓은 향아리가 눈에 띄어서 유심히 봤더니 그곳 주인 김선생님이 선뜻 저한테 안겨 주는 바람에 염치없이 얻어왔습니다. 그 향아리는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늘 곁에 두고 보고 있는데 그 향아리에서 여전히 아름다움이 풍겨 나옵니다. 바라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이 아주 정결해져요. 조그마한 향아리지만 욕심을 갖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보니까 그 아름다움, 그 향아리가 지닌 아름다움을 시시로 캐낼 수 있습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때 거기 비로소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도 보는 눈과 투명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으면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감수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수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움을 만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마다 모두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우리 본성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또는 바흐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 작곡가 감성과 우리 감성이 일치될 이루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악을 들면서도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것은 작곡가나 연주자와 듣는 사람 자신이 일체감을 이루는가 못 이

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물을 접했을 때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해요. 나와 그 대상이 하나가 될 때,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가장 오묘한 아름다움을 캐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술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작품에 절반의 혼만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술가도 자기 작품을 100퍼센트 온전한 아름다움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소장자에 의해 감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음악 하나가 완성을 이루려면 작곡가나 연주자와 듣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아름다운 사물을 인식하고 경험하려면, 그것이 도자기이든 그림이든 건축물이든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분별을 떠나서, 욕심을 떠나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움의 극

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뜰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저 단풍은 작년 것과 다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순간순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내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보면 그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지만, 선입견을 가지거나 작년 것과 견주거나 하면 지금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저 나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 나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명한 감수성인 사랑이 있어야 그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아무 표정도 없는 돌덩이에서 아름다움을 캐내듯이.

임제臨濟 선사 어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사시귀인 단막조작
(無事是貴人 但莫造作)

있는 그대로가 귀하다. 일부러 꾸미려고 하지 말라.”

독특함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고유한 것입니다. 저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과 견주어서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꾸미면 가짜입니다. 천연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는 자연스러움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러움에는 조화와 균형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마다 자기 얼굴이 있습니다. 그 자기 얼굴을 스스로 가꾸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얼굴은 사랑의 눈으로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추천장이라면 아름다운 마음씨는 신용장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추천장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신용장인 마음씨가 고

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름다움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동양화에서 여백은 그 그림의 격을 좌우합니다. 서양화에는 거의 여백이 없습니다. 텅 채워진 부분 좀 모자라는 구석이 있어, 그림고 아쉬움이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여백미는 우리들 삶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득가득 채우려고만 들면 욕망이 작용해서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추합니다. 그러나 텅 채우면 그 빈자리에 생기가 돌아서 시들지 않는 품격이 감돕니다. 세상사는 일도 그렇습니다. 가득가득 채우려는 것은 욕심스러워요. 그 욕심에 걸려 넘어집니다. 좀 모자란 듯한 구석, 텅 채워진 구석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납니다.

아름다움에는 또 거리낌 없는 무애(無碍)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미륵반가사유상’과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

차이는 너무 큽니다. ‘미륵반가사유상’에는 고요와 평안과 잔잔한 미소가 스며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면 저절로 고요와 평안과 미소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에는 그러한 평안과 미소가 없어요. 그저 무거운 고요가 감돌고 있을 뿐입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파리 로맹 박물관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은 무거운 고요 속에 굳어있습니다. ‘미륵반가사유상’에는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데, ‘생각하는 사람’에는 무애미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그저 무겁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사물에 깃든 아름다움이 거리낌 없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그 작가 혼이 그렇게 작용한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사유상(思惟像)을 통해서도 우리는 동서 문화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야스퍼스가 ‘미륵반가사유상’을 보

고 그토록 격찬한 까닭을 알아야 합니다.

걸림 없는 무애 시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 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일지 않고,
달이 연못에 들어도
물에는 흔적 없네.”

바람이 불어서 대나무가 일렁거려 마치 뜰을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먼지 하나 일지 않습니다. 또 밤에 달이 연못 속에 들어가도 물에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에 나오는 야보(冶父) 선사의 송(頌)입니다.


뛰어난 장인은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러나 명예나 돈을 생각하고 작품을 만들면 자취가 남습니다. 만들 때 그 사람 마음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시회

에 가서 그림이든 조각 작품이든 아무 고정관념 없이, 그 작가에 대한 선입견도 없이 빈 마음으로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 인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샘물과 같아서 아무리 퍼내도 다함이 없이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나 가꾸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으로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지닌 아름다움은 가꾸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샘에서 아름다움이 솟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과 나누는 일을 통해 내 자신을 시시로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선하고 염불하고 간경하고 경전을 읽는 일도 자신을 가꾸는 일이지만 그것은 추상화 같습니다. 진정으로 이웃과 나눌 때 내 안에 들어 있는 자비심이 샘솟습니다. 아름

다음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가을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길 권합니다. 날마다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지나면 안 됩니다. 이 가을은 다시 만날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가을입니다. 이 가을날, 그저 대상만 보고 즐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샘솟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웃과 나누는 데서 옵니다. 이 가을 다들 아름다움을 만나고 가꾸면서 행복하십시오. 

2007년 법정 스님

가을 길상사 정기 법문

장익 주교님께서 길상사 관세음보살 석상을 조성하신 최종태 선생님께 추천하신 법문입니다. 지난 법정 스님 선묵전 오픈 행사에서 “아름다움에 관한 매우 귀한 법문”이라며 강조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변택주 회원이 법정 스님의 육성 법문을 새로 녹취해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일기일회》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행 복

德 賢 (이사장)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행복인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른 동의할 수 없었던 생각이 난다. 아마 삶의 목적은 그냥 일상적이거나 인간적인 행복 말고 보다 고귀한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 인생은 있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너무 쉽게 동의한다. 이 고대 희랍 철인의 권위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의 일상적인 통념이나 느낌에 비추어 너무 당연하다고 쉽게 수긍하고 마는 것일까.

그러나 그냥,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라고 했으면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솔직한 고백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대철학자께서 말씀하시면, 이 수많은 가너린 인생의 학생들은 그저 행복을 찾다가 찾다가 찾지 못하고 끝없는 좌절 속에서 생을 보내고 대부분 처절한 회한과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이다. 거듭되는 중생의 생사, 그 궁극의 끝이 열반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깊은 통찰이며 가장 위대한 희망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그저 세속적 행복의 추구에 있다고 하면 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겁지겁 속된 행복을 찾아 헤매게 할 뿐이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실 인생의 의미조차 아직 모른다. 왜 우리는 여기 생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인생은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인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안고 이렇게 가혹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을 모르는 삶의 길을 우린 왜 가는 것일까?

사유와 번민을 통해서서는 결코 풀 수 없는 이 지성의 수렁은 철학적 탐구의 가장 고전적인 영역이었으면서도 뚜렷한 결론 없이 어물어물 종교의 영역에 떠넘겨진 숙제로 보인다. 그리고 어설픈 종교들은 여기에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는 초월자를 내세우고 검증할 수도 없는 내세나 이상적 낙원을 약속하며 사람들의 무지 위에 군림해왔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데올로기적인 기만성과 사이비 혹은 미신적인 상업적 착취구조로 존속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삶을 유린해왔는지 모른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근원적 물음들에 매달리기보다 이렇게 분명한 지금 현 상황의 내 존재의 존재방식과 행동에 대하여 솔직해지자는 것이다. 그러나, 무지의 베일을 쓴, 그리고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진 인간이 바라보는 그를 둘러싼 상황은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고 보면 더욱 두렵고 고통스럽다. 그가 얻어 쓰는 육신의 시간은 덧없고 빠르다. 죽음을 향해서만 진행되는 시간의 초침은 매 순간 불안하게 떨린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우선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누구나 당연히 행복을 추구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누구든 능력만 있고 기회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대단히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이 관점은 사람들의 생래적 이기성에 편승하여 시대적으로 널리 호응을 얻고 있다. 요즘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 다음으로 ‘싫어’, ‘좋아’ 하는 말을 먼저 배우며 평생 상품의 선택권을 가진 구매자나 스타들의 팬이 되거나 가급적 자신이 인간상품이나 스타가 되기 위해 성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가 쾌락주의자로 키워지는 이 사회에서 그들 스스로가 밭 빠진 독을 채우지 못하는 공허감은 무엇이 달래주고, 조화롭고 정의가 행해지는 사회를 위한 도덕성은 무엇으로 세우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존재의 고뇌와 부조리를 잊고자 애써 행복을 가장한다. 자신은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쇼를 한다. 과장해서 광고하고 그 거짓 행복을 팔기까지 한다. 자신을 파고드는 고

통은 예리하게 느끼지만 타인의 고통은 직접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비참하고 우울한 상황 속에 던져져 벗어나지 못하는지 답답해하다가 이 싸구려 행복론을 사들인다. 그러나 광대는 정작 가면 뒤에서 울고 있고, 어떤 때는 울다 지친 광대가 돌연 자살했다는 소식에 모두들 충격을 금치 못한다. 한 때의 가짜 행복을 샀던 사람들도 그 순간의 도취가 지나고 나면 즉시 일상의 불행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개그콘서트처럼 그저 한 순간의 공허한 위로에 지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세속적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말하며 세속의 성공론을 팔아먹는다. 이는 사람들의 저급한 통념과 우리의 성장과 교육과정에서 실 새 없이 우리를 세뇌하며 몰아대온 세상의 거대한 풍조와 궤를 같이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기만한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억울한데 우리 모두가 다 출세하는 일이 이론적으로라도 가능한가? 또 과연 그 누가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었던가. 어느 분야에서 아무리 찬란하게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얼마 안가 끝내 괴로움 속에서 덧없이 늙고 죽어간다. 그의 영화도 함께 한때의 불꽃처럼 스러지고 만다.

정녕 우리가 진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행복론이 필요하다.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나타난 모든 것은 무상하여라, 다 생멸하는 것들이네. 생멸이 다한 자리 열반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진실로 행복을 찾아 질주하던 사람이면 누구나 불교의 이 말에 갑자기 머리를 짱 부딪친 느낌이 들 것이다.

먼저 우린 삼계무안(三界無安)임을 깊이 인정해야 한다. 하늘에도 땅에도 영원한 안락은 없다. 세상의 즐거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진실한 즐거움이 아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맨 먼저 이것을 배웠어야 하는지 모른다. 세상의 고통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거기 물들지 않고 초연한 태도를 지니기를,

세상의 행복에 너무 목말라하거나 그것에 탐닉하지 않기를…… .

삼계 안에 행복이 없다면 삼계 밖엔 있을까? 삼계 밖은 어디일까? 시간 공간도 아니고 정신세계도 아닌 그 어디란 말인가?

제자가 열반을 얻은 스승에게 물었다.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생사의 업입니까?”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니라.”

삼계의 밖은 우리의 빈 마음이다. 즐기차게 쾌락을 구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 존재의 깊은 기쁨은 빈 마음으로 있을 때 선물처럼 문득 느껴져 오는 것. 그것은 무지개처럼 저 멀리 있는 듯 하나 다가가면 멀어지고 잡으려 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뜻밖에 호주머니 속에서 찾은 보배처럼 원래 내 것이며, 산골의 맑은 샘물처럼 내 안에서 솟아난다.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처럼 조작되지 않은 것이다. 빈 마음으로, 원래의 자연스러움으로 있지 못하고 권태로워하며 자칫 도박이나 유치한 오락 따위에 빠져드는 켈한 눈으로는 절대 그 아름다운 기쁨을 볼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세속의 온갖 즐거움을 등지고 무슨 재미로 숲속에서 살아갑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여래의 제자들은 오욕락(五慾樂)의 덧없음을 알아 그에 대한 갈망과 집착을 떨치고 마음을 챙겨 순수한 집중(Vitakka)과 관(觀)의 지속(Vicara)이 순일해진 상태의 청정을 얻으니 이것이 세속을 떨친 첫 번째 즐거움이다. 이것이 깊어지면 심신을 사로잡는 큰 환희심을 얻으니 이것이 두

행복하라.

그러나 행복을 구하지는 말라.

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얻을 수 있으며,
두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 문은 원래 열려 있기 때문이다.

번째 즐거움이다. 이 환희심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그보다 훨씬 안정되고 깊은 행복감을 얻으니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그런데 이 행복감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네 번째 선정의, 마음이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진 명정함을 얻으니 이것이 네 번째 즐거움이다. 여래의 제자들이 닦아 누리는 이 즐거움들에 비하며 세인들이 탐하는 오욕락은 그 16분의 1, 3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었다.

“그럼 부처님께서서는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가십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여래는 무욕(無慾)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느니라.”

행복하라. 그러나 행복을 구하지는 말라. 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얻을 수 있으며, 두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 문은 원래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다른 행복론을 실천해 보라.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무릇 일체의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그 마음을 맑히라.)”

이렇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면 그대를 어찌 할까. 그대 울려고 왔는가, 웃으려고 왔는가? 그대 진정 행복을 찾는 나그네인가?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고 할 수 없는 일이면 부질없이 꿈꾸지 말라. 



생명, 삶, 그리고 정치와 화쟁

우 희 중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최근 조계종단 화쟁위원회가 강남 봉은사 직영사찰 건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마무리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마도 위원회의 분위기는 정치적 논란은 배제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름 치우치지 않고 종교만의 문제로서 중도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화쟁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보면서 한국불교의 한계를 보고, 더 나아가 불교계가 생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많은 불자들이 봉은사 문제에 주목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단순히 한 사찰의 직영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불교의 부끄러운 현실이었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힘들고 소외된 서민들과 함께하는 커녕 언제나 정치권의 입김 속에 눈

치만 보며 지내왔다.

봉은사의 문제제기를 통해 한국 불교가 시류와 세속 권력에 영합하는 삼류 종교의 모습으로부터 중생과 함께하는 환골탈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문제제기를 단지 봉은사 직영 문제로 마무리한 결론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불교의 한계를 보여준 셈이다. 이 결론을 받아들이기로 한 명진 스님 역시 비난 받아야 한다. 당시의 문제제기가 단지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의 직영 문제로만 되어 개인적 불만 표현으로 되기 때문이다.


화쟁위원회가 현재 무서운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도 겨우 '4대강 사업 국민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토목공사이자 예산안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합의된 후에 진행하라는 전제 없이 내린 이런 결론이란 전혀 현실성 없는 듣기에만 좋은 결론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종교적 문제 상황에서 정치적인 것을 배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종단 내의 논의는 정치적인 것을 다룰 수 없다는 의견과도 맞닿아 있다. 얼핏 들으면 당연한 듯 하지만 생명이란 무엇이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깨어있는 바른 시각이 있다면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생명체는 관계 그 자체이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존재의 관계성이자 생명의 모습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정치적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 갈등과 모략 속에 행하는 짓거리를 말하기는 하나 또 다른 맥락에서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그 자체를 표현하여 정치적이란 말이라고도 말한다. 따라서 후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삶은 정치적인 것이다.

복잡한 관계의 그물망에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지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을 빼고 어떻게 삶을 말할 수 있겠는가. 또 현실 속에서 정치만큼 사람들의 삶에 영향 미치는 것도 없다. 따라서 종교에서 정치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세력을 위한 정치싸움과 같은 것이지 결코 삶이 지닌 정치적 속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오히려 중생의 삶을 다루는 종교에서 정치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오히려 부정적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화쟁위원회에서 정치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중요한 문제점을 피해서 사안을 축소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듣기 좋은 말로만 결론 내린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등을 돌린 셈이다. 앞으로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등 돌린 채 생명이니 생태니 말하는 관념적이고 공허한 모습이 한국불교의 모습으로 굳어질까 우려된다. 생명과 생태가 펼쳐진 삶의 현장은 그 자체로 곧 정치적이다. 



누더기방

정 태 경

창고로 쓰던 방을
고쳐 쓰기로 했다



누런색 초배지만
도배를 했다



누더기 방이긴 하지만
우리 손으로 작업해서
부듯하다
그리고 당분간 가구를
들여놓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이 방을
'텅 빈 충만'이라
부르기로 했다
텅 빈 방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다





채식의 개념과 단계적 채식

이 성 학 (기획실장)

“저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다른 메뉴 없나요?”

“그럼 고등어구이나 갈치조림 드세요.”

채식하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한다. 식당 주인이 육식을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고기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채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채식이란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채식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채식인연합회(International Vegetarian Union)가 밝힌 채식주의자에 대한 정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채식인연합회는 “채식주의자는 육류와 가금류 생선을 먹지 않는 비건(vegan)을 비롯하여 그들의 부산물인 우유나 계란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고 정의한다. (“vegetarianism includes veganism and is defined as the practice of not eating meat, poultry or fish or their by-products, with or without the use of dairy products or eggs” 「국제채식인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ivu.org/about.html>」)

이 기준에 따른다면 채식인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물론 생선도 먹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직접적인 살생의 결과물이 아닌 동물의 부산물은 각자의 소신에 맡길 수 있다.

채식은 영어로 vegetarian diet라고 쓰는데 vegetarian은 라틴어 vesere(…에 생명을 주다, 활기차게 하다)에서 온 말이다. 또 채소 vegetable의 veget는 라틴어 vegetus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vigorous(원기왕성한), energetic(정력적인), lively(생기넘치는), move(움직이다), excite(일으키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원적으로 보면 채식은 건강식,


할력식, 생명식, 역동식의 의미를 가진다.

채소를 먹는 사람이라는 뉘앙스의 한자식 표현인 菜食과 원기왕성한, 정력적인, 생기에 넘치는 등의 의미를 가지는 veget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한문 식의 ‘채식’이라는 용어가 ‘플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채식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켰다. 원래 바른 채식의 핵심은 통곡류, 콩류, 견과류, 종실류, 채소류, 해조류, 과일류를 골고루 먹는 것인데 한문은 이중 채소류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채식과 관련된 용어 vegetarianism, vegetarian은 1850년대 영국에서 처음 고안되었으며, 이후 채식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영국을 비롯한 서양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채식인’을 섭취하는 식품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었는데 우선 육류·가금류·생선 등 일체의 고기와 우유·계란·벌꿀 등도 먹지 않는 사람을 「완전채식인, 비건(vegan)」이라 한다. 이들은 모피나 가죽 제품도 거부하며 기르는 동물에게도 채식사료를 선택한다. 우유를 먹는 사람은 「우유채식인, 락토(lacto) 베지테리언」, 계란까지 먹는 사람은 「유란(乳卵)채식인, 락토오보(lacto-ovo) 베지테리언」이라고 한다. 여기에 생선까지 먹으면 「생선채식인, 페스코(pesco) 베지테리언」이라 하며, 닭고기까지를 포함하면 「반(半)채식인, 세미(semi) 베지테리언」이라고 한다. 닭고기까지 먹는 것을 채식으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서양에서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다.

채식을 한다면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볼까. 당장 우유 계란까지 모두 끊어야 하는 완전채식인(vegan)이 되기 힘들다면, 우유 계란까지만 먹는, 그것도 힘들다면 생선까지만 먹는 단계적 채식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혹은 일주일에 한번만 고기를 먹는 등의 생활규칙을 세워보면 어떨까?

불교 집안에 ‘방생(放生)의식’이 있다. ‘방생법회’라고도 불리는 이 의식은 살생에 대한 업보를 상쇄시키고 자비심을 기르는 의미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쩌다 한번 물고기를 놓아주는 이런 방생의식보다는 평소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생활이야말로 참다운 방생이 아닐까?

내가 한 번 고기를 먹지 않으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생각해보자. 



낙엽, 그 비움의 미학

최 원 형

길상사 도서관 봉사팀장. EBS와 KBS에서 방송작가로 일했고, 「도시에서 생태감수성 키우기」(랜덤하우스코리아) 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가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물드는 단풍으로, 쌓이는 낙엽으로, 점차 추워지는 온도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우리 마음으로 가을은 깊어갑니다.

기분 좋게 싸하던 날씨가 조금씩 어깨가 움츠러드는 기운으로 바뀔 즈음, 단풍의 고운 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가을인데도 어느 날 문득, ‘언제 저렇게 물들었지...!’하고 느끼는 일 또한 해마다 되풀이합니다. 시간에 쫓기어, 일에 떠밀리어 살다 어느 날 고개 들어 바라본 내 앞의 나무는 그렇게 노랗고 빨갱게 변해있더군요. 설법전 앞의 단풍나무가 뒤로 보이는 범종각 기와의 곡선과 조화를 이루며 한껏 운치를 드러냅니다. 눈

길 닿는 곳 어디나 한 폭의 그림 같은 계절, 가을입니다.

한해의 끝자락이 멀지 않은 늦가을이기 때문인가요? 우리에게 이렇듯 여러 단상을 떠올리게 하는 단풍이 나무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단풍이 들고나면 그 예쁜 색색의 잎들을 나무는 오래오래 달고 있지 않고 왜 금세 떨어뜨릴까요?

추분을 넘기면서 낮시간이 짧아지다보니 자연스레 기운이 떨어집니다. 푹 떨어진 기운은 모든 생명체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동물들 가운데 주변의 온도에 따라 체온이 달라지는 변온동물의 경우엔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요, 그래서 그들은 겨울철에 잠을 자러갑니다. 땅 속으로 동굴 속으



바람 부는 가을 아침, 길상사 뜨락

로 혹은 그 어디든, 그런 것이 어의치 못한 동물들은 한 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구요, 식물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죠. 한 해살이 식물이야 한 해로 생을 마감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해살이들은 어떻게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동물처럼 땅 속으로 혹은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뿌리 박혀 있는 그곳에서 추위를 견뎌내는 방법으로 ‘낙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단풍과 낙엽은 가장 눈에 띄면

서도 해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가을의 대표적인 자연현상입니다. 낙엽이 지는 까닭은 낮의 길이가 짧아져 기온이 내려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나무는 기온이 떨어지면 일단 자기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보존하는데 안간힘을 씁니다. 몸속에 남아있는 수분은 설탕으로 바꾸어 겨울 동안에도 얼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말하자면 부동액 상태로 만드는 거지요.

넓은 잎, 흔히 활엽수라 부르는 나무들은 잎 표면을 통해 엄청난 분량의 수분이 증발하는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뿌리로부터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중단되면 증물을 보존하는 일은 무척 긴요해집니다. 잎을 통해 수분은 계속 증발하고, 그런데 뿌리에서는 수분 공급이 안 되는 겨울에도 활엽수들이 잎을 달고 있다면, 나무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에 있어 물은 곧 생명유지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때 나무는 아브시스산이란 호르몬을 분비하여 수분을 보존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바로 떨어층을 만드는 것이지요. 떨어층이란 잎이나 꽃잎, 열매 등이 식물의 몸에서 떨어질 때, 서로 맞닿아있던 부분에 생기는 특별한 세포층을 말합니다. 식물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미생물이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지요. 나무줄기에 잎이 붙어있는 바로 그 지점에 떨어층이 만들어지고 이 떨어는 나무의 수분이 잎사귀로 이동되는 걸 막습니다. 결국 수분 공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잎사귀는 말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수분공급은 안되어도 햇빛이 있는 동안 잎에서 양분은 한동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다보니 그 양

분들로 인해 잎사귀 내의 산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엽록소에 가려 있던 다른 색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초록이던 잎 색깔은 노랑 빨강 혹은 주홍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멋진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를 우리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즐기며 ‘단풍’이라고 부릅니다.

낭만이라는 낱말이 무척 어울리는 단풍과 낙엽은 그러니까 나무 나름으로 겨울을 대비하는 월동외한 과정인 셈이군요. 나무는 결코 우리에게 알록달록한 단풍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 헨리의 작품을 위해 마지막 잎새를 남겨 두지도 않고요. 단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펼칠 따름인 거죠. 그런 노력이 한 사이클 돌고나면 나무에는 나이트가 생기게 되고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풍들고 낙엽이 지는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나무의 생존은 불가능하겠죠.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잎사귀를 떨어뜨려야 살 수 있기에, 나무는 미련 없이 잎을 떨굽니다.

때론 지니고 있는 것을 훌훌 털어버리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찬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취할 수가 없듯, 나무역시 때론 가진 것을 털어버리는 비움의 미학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텅 비워 버림으로써 새로운 충만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단풍들고 낙엽 지는 저 나무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단풍의 아름다움, 낙엽 쌓인 거리의 낭만 이면에 이렇듯 나무의 멋진 ‘비움의 철학’이 숨겨져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요? 우린 살아남기 위해 가진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버리며 살고 있을까요? 얼마만 큼이나 비우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른 스님께서는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도 더 충분하다’고 하셨지요. 가을 끝자락에 숨은 그림 찾듯, 단풍을 징검다리삼아, 낙엽을 딛고 건너, 텅 빈 충만을 만나러 가볼까요? 🍁



길상사 가을 단풍



작은 정성들이 모이는 곳

- 묘희원 봉사팀 -

김 광 수 (묘희원 모듬장)



“흙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흙을 가까이 하라. 흙에서 생명의 싹이 움튼다.
 흙을 가까이 하라. 나약하고 관념적인 도시의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흙을 가까이 해야 삶의 뿌리를 든든한 대지에 내릴 수 있다.”

〈법정스님 / 오두막 편지〉

맑고 향기롭게 나눔의 현장 묘희원은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다. 다른 봉사단체와는 달리 이곳

에서는 농사일을 거들고 있다. 매월 약 20여명이 참여하며, 어르신 목욕 돕기, 지체장애자를 위한 도움

주기, 식당업무 지원, 긴급 시설관리 복구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주 활동은 발농사를 짓는 일이다.

이곳에 맑고 향기롭게 묘희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든지 어느새 11년. 봉사자들의 얼굴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정성만은 아직도 한결같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기를 불어 넣어 주고자 모인 그들.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좋은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봉사자들은 작은 정성을 모으고 있다.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수확된 농작물은 모두 이곳 식구들에게 공급되어 밑반찬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가슴이 뿌듯하다.

보통 오전 9시쯤 시설에 도착하면 인원을 체크한 후 이곳에서 발농사를 총괄하는 정행 처사에게서 작업내용을 전달받는다. 약간의 인원은 식당업무지원을 하는 등 작업별로 인원이 배치되면 발농사 팀은 도회지에서는 타보기 힘든 일명 딸딸이 경운기와, 소형트럭 화물적재함에 나누어 타고 밭으로 이동한다.

적재함을 타고 비포장도로에서 이리저리 흔들려도 불편해 하기는 커녕 서로 마주앉아 마음껏 웃는 소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활력소와도 같은 역할을 해준다.

한때는 2만 여 평이나 되던 그 많던 주변 농토에 콩 심어서 된장, 고추장 만들고, 김장배추, 무 농사 지어 전 식구들이 충분하게 지급자족할 때가 있었는데, 점차 주변지역의 개발로 무상으로 내주었던 농토를 주인들의 반환요구로 내어주고 이제는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춘하추동을 알려주던 산비탈의 나무와 숲이 사라지고 현대식 건물들이 나무들 대신 차지하고 있는 광경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자연을 파괴하여 많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눈앞의 이익만을 위하여 끊임없이 파괴하는 행위가 그칠 줄을 모르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정책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이런 일들이 중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밭에 도착하면 밭고랑에 들어가기 전, 정행 처사는 씨뿌리기, 물주기, 김 메기, 걷어 들리기, 이동하기 등 계절별 농사일과 농기구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손수 시범을 보

인다. 그런 다음에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조 편성을 한 후 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하지만 회원들 중 상당수가 처음 농사일을 해보거나 해보았어도 오랜만에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 귀한 농작물들을 잘못 다루어도와ז기느커녕 오히려 피해를 주지나 않을까 하여 지레 겁먹고 신티 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오뉴월에 하룻별이 어디터냐 하는 생각에 먼저 이곳에 와서 일 해본 선배님(?)들이 다시 시범을 보이면서 편한 마음으로 밭고랑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한다.

고추밭에서의 작업은 대부분 밭고랑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위쪽을 보아야 병든 고추, 빨강게 잘 익은 고추를 구분하기가 쉽다. 이때 사용되는 소형 간이깎개가 있다. 이것을 바지 입듯이 입고 고추를 따 마대나 용기에 넣어 밭 언저리로 이동하여 차량에 싣고 창고로 운반한다. 이런 일을 해보면 농부들의 힘든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가 있다.

묘희원에서는 요즘 황토방용 보



일러 빨감을 구하기 위해 인근 산에서 고사목을 베어 야적장에 쌓아놓고 있다. 야궁이에 넣기 알맞게 전기톱으로 자른 후 보일러 입구에 차곡차곡 쌓아 놓은 것을 보


면 올 겨울도 식구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다 충만하다. 현재는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더욱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점심 후에는 전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본부의 전달사항 알리기, 건의사항, 개선사항 등 모회원 봉사팀을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한다.

본부에서 매년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때때로 이곳 전 식구들은 길상사·맑고 향기롭게 본부를 방문

하거나, 온천목욕 야외 나들이, 무용·노래 등 실내위안 행사, 필요한 물품 등을 산다. 이곳 식구들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본부에게 고마운 마음이 절로 든다.

오늘도 회원들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과 불우한 이웃들에게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것인가를 생각한다.

모회원과 회원들간의 인연이 못내 소중하기만 하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발원한다. 

■ 모회원 봉사팀

묘희원(妙喜院)이라는 명칭은 불교의 묘희불(妙喜佛)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단체의 원류는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다.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입각해 노인복지사업 자비복지실천을 위해 묘희스님이 1991년 사단법인 불교자제공덕회(자제정사 양로원)로 설립 운영하다, 2004년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로 보각스님이 변경 운영하는 곳이다. 산하시설로써는 묘희원, 상락원(常樂院), 불이원(不二院)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희원, 상락원에는 노스님들과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장애인요양시설인 “불이원”에는 중증 지적 자폐성 장애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는 매월 첫째 일요일, 주로 농사일을 거드는 봉사를 하고 있다. 2000년도부터 이곳에서 봉사를 시작했으니 올해로 11년째이다. 묘희원 봉사에 참여하실 회원은 첫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하계는 오전 8시)까지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으로 오시면 된다. 오실 때는 농사일에 적합한 간편복 및 면장갑을 준비하면 된다.



길상사·맑고 향기롭게 템플라이프

모 아 라

서울시 소속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통역안내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길상사 템플라이프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관광안내원들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시의 주요 거점 12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명동·남대문·신촌·이태원·인사동·광화문에는 빨간 옷에 ‘i’자를 새긴 유니폼을 입고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적시에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고마운 분들이 길상사를 찾게 된 것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템플스테이 관련 문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길상사·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달 셋째 넷째 주말에 실시하는 1박 2일의 수련형 주말템플스테이 외에 2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하루 4~6시간의 짧은 체험을 할 수 있는 템플라이프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맑고 향기롭게 서울사무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 전화 : 02)741-4696/7
- 이메일 : kilsangsa@templestay.com

많은 내·외국인들에게 템플스테이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서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고 어설픈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늘 아쉽던 차에 길상사에 오게 되어, 스님의 안내를 받고 108배·다도·명상 등의 불교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주지스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은 살면서 부딪히는 고민과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되었으며,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나게 되는 이상하고 예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힘든 마음을 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템플스테이 교육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김포공항 관광안내소 박00



내 안에도 꽃은 피는가

청 정 심

“오늘도 가니? 나이도 있는데 살살 해야지……” 팔순의 노모는 나이 든 딸이 걱정되어 아침마다 현관에서 같은 말을 하십니다. 지난해 4월, 무언가에 이끌리듯 간길상사의 봄정기 법회에서 어른스님을 처음 뵙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벽찬 감동으로 일주일 아니, 한 달은 행복했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상실감을 가득 안고 끙끙 대던 중 듣게 된 스님의 법문은 메마른 나의 영혼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적셔주었고 길고 큰 울림으로 내게 왔습니다.

집이 멀어 오고감이 힘들던 차에 다행히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하안거 결계와 함께 시작된 아침좌선수행에 거침없이 동참하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주말수련회 한 번 거치지 않

고, 토요일법담에서 배운 좌선 가르침이 전부인 채로 말입니다. 그러나 오랜 습에 굳어버린 몸은 완강히 저항했고 힘이 들었습니다. 2시간의 좌선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면 다짐하듯 중얼거리는 나와 마주했습니다. ‘내일은 못가. 오늘로 끝이야!’

하지만 땀에 젖은 범복만큼 후줄근한 무거운 몸을 끌고 오가는 과정이 열흘, 스무날, 한 달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집을 나서는 자신이 차츰 예뻐지고 대견스러워져 갔고 무사히 하안거를 마치고 오늘도 좌선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만 듣고 살았고,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고 살았고,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만 하고 살았던 지난날이

니 육근(六根)인들 어디 좀처럼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야 몸도 마음도 온전히 추스를 수 있다는 주지스님의 가르침은 저를 가슴 저리게 경책합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데, 집착으로 살아온 삶은 육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대상인 육경(六境)에 집착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데, 매번 걸려 넘어지고 아파합니다.

“보살님들 각자가 이미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기에 수행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부처님들께 경배합니다.”라는 스님의 말씀으로 주저앉으려는 마음을 다시 세웠고 귀의심도 나날이 자랐습니다.


좌선을 하면서 그동안 눈을 뜨고도 온전히 보지 못한 어리석음과 더불어 입에서는 향기나는 말이 적었으며, 귀는 분별하고 가려내어 참소리에 어두웠고, 코는 좋은 냄새만 취했으며, 몸과 생각도 이와 같아서 무명의 세월을 살았음을 가

슴 깊이 참회하게 되었습니다. 또, 관계가 서먹해진 친지와와의 문제도 수행 중 눈물이 나며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란 생각이 올라와 진참회를 하게 되었고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참회하니 가슴에 무거운 돌 하나 버린 듯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아주 작은 빛 하나를 발견했기에 그곳을 향해 쉬지 않고 가려합니다. 더디더라도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항상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하는 수행자이고 싶습니다. 결코 화려하지 않은 이 가을의 산국처럼, 남에게 쉬 드러나지 않는 유흥초의 작은 꽃잎처럼, 묵묵하고 묵연하게 나 자신의 속 뜻을 가꾸는 그런 소박한 수행자이면 좋겠습니다. 생사의 윤회를 끊고 싶은 마음 아주아주 간절해서 부처님을, 어른스님을 닦고 물들어서 억겁의 생이 지나서라도 언젠가는 꼭 성불하고자 감히 발원합니다.

부처님! 어른스님! 고맙습니다.

도량 내 여러 스님들! 주지스님! 고맙습니다. 도반님들 고맙습니다!

옴마니 반메 흠.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마음을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늘 지니고 살기 위해
참선수행을 하고 좋은 글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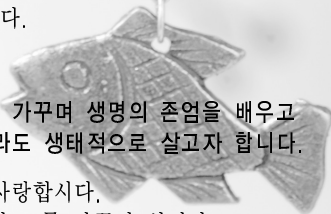
외로운 이들, 결식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덜어주기를 성심껏 합니다.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모희원(3일, 매월 첫째 일요일)

(소감 : 김광수 모듬장)

올해도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무엇으로 기쁨을 나누어 드리나 생각 중에 모희원 측과 협의한 바, 대다수 어르신들께서 외부로 나들이 행사를 원하신다고 한다. 돈독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겹해서 어르신, 장애인, 노스님, 봉사자, 관계직원 등은 식구들과 함께 어울려 온양 온천장과 현충사를 방문하는 “맑고 향기롭게 연대 나눔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 관광버스 2대에 나누어 타고 먼저 온양 온천장에 도착하여 봉사자와 직원들은 목욕 도와드리기, 옷 정리해 드리기, 신발 챙겨 드리기 등 목욕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드렸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다음 행선지인 현충사로 이동해 휠체어 밀기와,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부축하면서 현충사 내를 돌아보았다. 이순신 장군 사당, 전시장, 예쁜 야생화도 감상하고 돌아오는 버스에 오르기 전에 어르신들은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부축해 주어서 고마워

요!”,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하시면서 인사도 빼놓지 않으신다. 전날 비가 와 걱정했는데 오늘따라 청명한 가을 날씨에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 이를 만끽하시는 해맑은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진인선원(10일, 매월 둘째 일요일)

(소감 : 이금재 모듬장)

오늘은 부처님의 인연으로 정미영님과 조은경님이 새롭게 활동에 참석해 주셨다. 오전에는 주방 일손돕기, 청소, 오후에는 관음원과 문수원에서 어르신과 노래와 율동의 시간을 가졌다. 점심 후에는 사무국에서 모듬장 회의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맑고 향기롭게의 정체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있었다. 범 종교를 표방하는 시민모임에서 지방모임행사시 범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을 고려해야 한다. 맑고 향기롭게 이사님들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이판과 사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러저런 야단법석이 있었다. 선임 활동자로서 활동에서의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모듬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일)

(담당 : 권미자 모듬장)

■ 11일 이서목 - 해외지사 파견을 앞두고 서너 달 쉬는 동안 이곳 서울 노인복지센터 봉사에 참여했다. 기간은 짧았지만 나에게서는 실천에 따른 많은 느낌들과 깨달음을 준 시간들이었다.

처음 봉사를 하기 위해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혹시 기존 봉사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닐지, 정말 나의 봉사가 도움이 될지’ 등등 생각이 많았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자’는 것이었다. 남들에 비해 봉사할 시간이 길지 않으니...

10월 11일 출국을 앞두고 마지막 봉사를 나갔다. 언제나처럼 반겨주시는 봉사 회원님들, 나에게 봉사하는 마음과 급식봉사시 필요한 조언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 너무 고마운데 이번에는 먼저 그만두는 것이 죄송할 따름임에도 불구하고 덕담까지 듬뿍 주셨다. 이날 봉사는 여러모로 마음이 짝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봉사라는 것도, 정들었던 보살님들과 헤어

지는 것도, 특히나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배추와 무를 비롯해 모든 야채 값이 너무 뛰어서 그 여파가 어르신들 식사에까지 영향 미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다. 무생채가 김치 대체용으로 어르신들께 제공됐는데 그나마 양까지 터무니없이 부족해 추가 배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해를 하시면서도 불쾌감을 드러내시거나 꾸중을 하셨다. 그 꾸중이 기분 나쁘고 들고 있기 힘들기 보다는 오히려 더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기만 했다. 좀 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더 많은 어르신께 부족한 것 없이 하루 한 끼라도 배불리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텐데..., 그러나 그럴 수 없는 현실에서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물질적인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드리는 봉사하시는 보살님들이 있어 행복하단 생각이 든다.

이번에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하면서 내게 가장 되새겨진 것은 낮모르는 어르신들께는 이렇게 봉사하고,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 친절을 베풀면서 왜 가장 가까운 내 부

모, 형제에게는 늘 투정만 하고 잘 못헤드렸을까 하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정작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내 가족, 친지들부터 먼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소중한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니까.

마지막으로 매번 너무 고생이 많으신 맑고 향기롭게 봉사회원들과 그 외 봉사자들, 센터 직원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정진하시길 간절히 빌어본다.

■ **18일 권미자** - 배추수급 불량으로 노인센터도 지난주부터 김치배식을 못하고 있다. 오늘도 김치 대신 부추겉절이가 나갔는데 그나마도 원하시는 만큼 많이 드리지 못했다. 오늘따라 다른 반찬(버섯볶음, 오징어젓갈)도 배식량이 적었다. 반찬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았다. 반찬을 더 달라고 하시는 어르신들과 더 드리고 싶지만 정해진 양만큼 밖에 드릴 수 없는 봉사자 분들 모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었다. 아침저녁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노인센터에 오셔서 드시는 점심 한 끼라도 따뜻하고 배부

르게 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봉사자 모두의 마음이었다.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유

(담당 : 엄경숙 모듬장)

■ **김남주** - 새롭게 반찬 지원을 하고 있는 가양동 거주 어르신께서 교회를 다녀 반찬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하셨다. 그래서 절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나눠드리는 것이니 한번만 더 생각해보시라고 권해드렸다. 또 모임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협상품권을 국가에서 주는 줄 잘못 알고 계셔서 자세히 설명해드렸다.

■ **임진성** - 한OO 어르신께서 추석 때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다가 많이 우셨다고 한다. 세월이 너무 무정하고 빨리 가버렸으며, 6.25 전쟁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또한 가슴이 많이 메어 왔다. 제주도에 사는 어르신께서는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는 말씀과 제주도 방언을 쓰시면서 다시 표준어로 해석해주셔서 재미있게 말벗을 하고 있다.

서울시립수락양로원
(1, 2, 3, 5주 목요일)
(담당 : 오은주 모듬장)

■ **21일 이성학** - 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서울시립수락양로원만 가보지 못했다. 언젠가는 한 번 가보리라 마음먹었는데 마침내 뜻을 이루었다. 오전 근무 후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에서 오은주 모듬장님의 차를 타고 수월하게 수락양로원에 도착했다. 스산한 가을의 정취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늦가을과 묘하게 대조를 이룬 표정들, 하지만 우리가 노래로 흥을 돋우자 이내 거기에 젖어드셨다. 처음 갔지만 열심히 박수쳤다. 복도 쳐보려고 했지만 자신이 없어치지 못했다. 동요는 정서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앞으로 동요에 찬론자가 될 것 같다. 박자와 음정은 맞지 않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노래 속에서 잃어버린 젊음을 찾고 계셨다. 몇 년 만에 처음 노래를 한다는 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아이처럼 기뻐했다. 음악치료를 하는 이순화 선생님은 나이를 잊고 사시는 분 같다. 뇌경색으로

고생하시는 아버님 생각을 하면서 잠시 불효자의 회한을 느끼기도 했다. 머지않아 나도 저렇게 되리라. 부지런히 공덕 쌓고 수행해야겠다.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다. 1시간이 후딱 지나갔다.

승가원(1, 3주 일요일)
(담당 : 홍정근 봉사팀장)

■ **10일** - 첫째 주가 중·고등학교 시험기간이라 둘째 주 일요일에 요가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주는 평소 요가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화련방 아동들이 함께하였다. 요가를 끝내고 나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동들 머리를 두드려 주었는데 시원해서인지 싱글벙글하였다. 오전에 봉사자들에게 간식 챙겨주신 김은영 팀장님께도 감사드린다.

■ **15일** - 장애아동들을 위한 행복타운 건립기금 마련 바자회와 일일차집행사가 있었다.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에서 3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요가활동과 여름캠프지원에 감사하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 대표로 박용국학생이 시상하였다.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

(매주 목, 금요일)

(담당 : 최두리 모듬장)

■ **30, 1일** - 오늘처럼 기름에 튀기는 밀반찬 같은 경우 목요일 자원 활동 가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표고버섯과 새송이 버섯을 튀기면 기름이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요란하다. 콩을 쏟아 붓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불 일하시는 분들은 마스크에 심지어 앞치마 복면까지 준비한다. 그런데 금요일은 살짝 버섯 순서만 새송이에서 표고로 바꿨을 뿐인데 기름이 잠잠하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일까, 금요일은 아주 수월하게 끝났다.

■ **14일** - 배추가격이 많이도 올랐다. 배추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가격이 들쭉인다는 사실을 요즘에야 느꼈다. 배추가격이 비싸다고 높으신 분은 양배추로 김치를 담궈라 하시고(참고로 양배추 1통 가격이 8천~1만원이었습니다.) 다른 높은 님들은 김치를 적게 드시라 하시고, 김장도 늦게 담가라 하시는데 참 답답하다. 서민들은 김치 하나면 반찬 중 반은 해결된다. 오늘도 참 즐거웠

다. 맛난 김치를 담가 김치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전해 드릴 수 있어서.

■ **21, 22일** - 극락전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조용하고 맑은 경내를 거니는데 선방에 계시는 듯한 처사님이 떨어진 낙엽을 쓸어 모으고 계신다. 무심코 거닐었던 그 길도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기에 한층 더 단정하고 깨끗한 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맑고 조리장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오늘도 일사천리도 잘 마무리하였다.

(총 373가구, 단체 1곳)

- 1째주 - 버섯강정, 무생채
- 2째주 - 고등어자반튀김, 콩나물무침
- 3째주 - 김치
- 4째주 - 어묵볶음, 유채나물
- 5째주 - 오복채, 계란버섯장조림

■ 결식후원금 9/1~9/30
24,229,000원

결식이웃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서울모임

신임 이사장 덕현스님,

대구 지부 초청강연회 및

제4회 맑은 세상 한마당 대구나눔잔치

11월 26일(금) 오후 5시 30분

대구 프린스 호텔 2층 리젠시홀

맑고 향기롭게 2대 이사장 덕현스님의 대구 지부 초청강연회 및 제4회 맑은 세상 한마당 대구나눔잔치가 오는 11월 26일(금) 대구 프린스 호텔 2층 리젠시홀(Regency Hall)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5시 30분부터 대구모임 봉사활동 대상자인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아동 및 지역의 외국인노동자, 시각장애인 등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제1부 맑은 세상 한마당, 제2부 이사장 덕현스님의 강연, 제3부 식사대접을 통한 화합마당으로 이루어집니다.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1996년 5월 22일 창립 후, 그동안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회원 1천여명이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2008년 만촌동에 자체 신사옥을 마련한 대구모임은 이번 이사장님의 초청강연회를 계

기로 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전모임, 광주모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초청강연회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부: 오후 5시 30분

제4회 맑은 세상 한마당

■ 2부: 오후 6시

이사장 덕현스님 초청강연

■ 3부: 오후 7시 20분

저녁 식사 및 화합마당

■ 문의: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

(053)753-8883

대구 프린스 호텔

(053)628-1001

광주 지역 순회 법회 및 맑은세상 한마당 원만회향

지난 10월 22일 (사)맑고 향기롭게가 주최하고 광주지부가 주관한 제2대 이사장 덕현스님의 두 번째 지역순회법회 및 제4회 맑은 세상 한마당 광주나눔잔치가 회원들의 따뜻한 손길과 열정으로 원만히 회향되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이전 개원 기념식’도 겸한 이번 행사는 오후

4시 광주 지장왕사 지하 1층에서 지역 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한 제1부 맑은 세상 한마당 광주나눔잔치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은 2대 이사장 덕현스님의 축사, 고현 맑고 향기롭게 2대 광주 본부장의 인사말, 지용현 광주전남 불교신도회장, 윤청광 서울지부 이사의 축사, 현장스님의 인사말, 내빈 소개에 이어 현중순 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연(蓮)을 알면 살 수 있다’를 주제로 한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前 광주불교방송 장문정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열린 광주나눔잔치에는 김영애, 유상호(섹스폰), 청심행(보살춤), 이에린 등이 출연했으며, 지역 어르신 등 100여 명은 광주회원들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2부 지역순회법회에서 신임 이사장 덕현스님은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한다는 초대 이사장 법정스님의 말씀에는 이 운동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조화가 중요함을 함축하고 있다”면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

당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며, 일상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사는 마음가짐을, 사회적으로는 나에게 제일 소중한 부분을 남을 위해 쓸 목적으로 떼 놓는 준비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님은 “법정스님 입적 후 그 사회적 반향으로 ‘맑고 향기롭게’가 서울을 비롯 전국적으로 1만 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큰 단체로 성장했다”며 “예산규모와 활동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중앙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활동 범위도 국제구호활동 등으로 넓혀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윤청광·조영환 이사, 김진곤 감사, 김자경 사무국장, 서울지부 홍정근 팀장, 대구지부 이재원 사무국장·이승대 운영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11월 주말 선수련회 안내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수련회는 참가자들의 수준을 고려해 한 달에 두 번 신참반과 구참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불교를 갖 접하시거나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신참반에, 수련경험이 있거나 참선을 집

중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구참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해 ‘길상사’와 ‘맑고 향기롭게’가 함께 열어 가는 뜻깊은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길상사 홈페이지 템플스테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참반: 매월 셋째 주말(11.20~21)
- 구참반: 매월 넷째 주말(11.27~28)

2010 숲 기행 평가모임 및 북악산 서울성곽 트레킹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경상북도에서 만난 새와 꽃과 나무,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고즈넉한 사찰과 우리 문화들을 뒤돌아보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올해 숲 기행에 한번이라도 참가하셨던 분이라면 모두 나오셔서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좋은 의견도 개진해주시길 바랍니다. 평가모임이 끝난 오후에는 북악산 서울성곽의 가을 단풍과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는 번개 숲 기행도 있으니, 늦가을 색다른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 주제: “2010, 경상북도 숲을 돌아보다”
- 일정: 11월 20일(토) 오전 10시~12시

평가모임(길상사 내 소강당) / 12시~1시
점심공양 / 오후 1시~4시 서울성곽 코스 트레킹

맑고 향기롭게 정기 회원만남

11.19(금) 오후 2시, 지장전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기 위한 노력으로 매월 회원만남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회원 간의 자제 만남으로 진행됩니다.

법정스님 글꼴 탄생

윤디자인(www.yoonfont.co.kr)에서 법정스님 글꼴 법정체를 만들었습니다. (글꼴 다운 기간 2010.10.8~12.15)

결식이웃을 위한 겨울김장

(총 3,300여 포기) / 12.1(수)~2(목)

얼마 전 배추파동으로 우리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던 김치! 고기, 나물 등 여러 반찬이 있지만 김치만한 반찬은 없다고 합니다.

결식이웃 밑반찬팀이 겨울김장을 통해 이웃의 큰 근심거리를 넉넉한 정으로 돌려 드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독거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저소득층 총 373가구와 인연 있는 월

곡청소년센터(청소년공부방), 지계의 집(장애인시설), 경로당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 가구당 8포기 내외(25kg), 시설에는 30~100포기 등 총 3,300여 포기를 할 이번 김장은 12월 1일 재료 다듬기, 12월 2일 배추 속 넣기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양이 많아 특히 힘 쓸 남자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 도움 주실 분은 먼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맑고의 나눔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일시: 12.1(수)~2(목) 09:30~15:00
- 장소: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준비물: 앞치마, 면장갑, 고무장갑, 모자

11월 알뜰나눔장터

올해의 마지막 알뜰나눔장터! 혹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욕심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좀 더 필요한 이에게 전달하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푸근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뜰나눔장터는 헌책, 헌옷, 천연화장품, 친환경용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 일시: 11.28(일) 11:00~14:00 길상사 트랙
- 물품접수기간: 11.22~26

11월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길상사-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수련회 / 신참반: 11월 20~21일(셋째 주말) / 구참반: 11월 27~28일(넷째 주말)
- 맑고 향기롭게 회원 만남의 날 / 11월 19일(매달 셋째 금요일) / 오후 2시 / 지장전
- 이사장 스님 대구지부 초청강연회 / 11월 26일(금) / 대구 프린스 호텔 2층 리젠시홀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11월 4일, 5일, 11일, 18일, 19일, 25일, 26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물어도 좋을 일복차림(* 11일은 김치 담그는 날)
- 모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일손 돕기 정기자원활동 / 매달 첫째 일요일(11월 7일) / 오전 8시 30분 /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
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1월 14일) 오전 8시 20분
경복궁 건춘문 앞 출발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 자원활동
/ 1·2·3·5주 목요일(11월 4일, 11일,
18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
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
집결 / 일반 자원활동자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11월 1일, 8일, 15
일, 22일, 29일), 매월 첫째 수요일(11
월 3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다른 요일 자원활동자도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자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
/ 첫째, 셋째 일요일(11월 7일, 21일) /
오전 9시30분~12시 / 청소년 봉사자
- 전화말벗봉사 월례회의 / 11월 8일(매달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 서울모임 사무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11월 3일, 10

일, 17일, 24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세럼, 한방비누 순으로 만듦) /
소강당 옆 거사림 / 선착순 8명 마감 /
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강좌 / 매주 화요일(11월 2
일, 9일, 16일, 23일, 30일) 오후 1시
/ 소강당 옆 거사림 / 선착순 10명 마감
- 알뜰나눔장터 / 11월 28일(일) / 길상사
경내
- 2010년 숲기행 평가모임 / 11월 20일
(토) 오전 10시 / 길상사 소강당

〈기타 활동〉

- 2010년 결식이웃을 위한 김장 / 12월
1일(재료준비) 2일(김치담기)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 준비물 : 앞치마, 면장
갑, 고무장갑, 모자
- 봉사팀 모듬장 회의 / 11월 23일(매달
넷째 화요일), 오후 7시 / 서울모임 사
무실
- 소식지 발송 / 11월 5일(우편분류 10월
29일)

일반사업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부산모임(051-898-2672~3)

11월 부산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활동
3 / 10 / 17 / 24일(매주 수요일)
10:00~12:00
- 장애우 이동목욕
3 / 10 / 17 / 24일(매주 수요일)
09:00~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보조 및 시설정화
4 / 11 / 18 / 25일(매주 목요일)
10:00~13:00
- 부산시 노인전문 제1병원 치매어르신
목욕봉사
4/18일(1·3주 목요일)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병동 목욕봉사
11/25일(2·4주 목요일)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준비
4 / 11 / 18 / 25일(매주 목요일)
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5 / 12 / 19 / 26일(매주 금요일)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
동목욕
5 / 12 / 19 / 26일(매주 금요일)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목욕활동
5 / 12 / 19 / 26일(매주 금요일)

09:30~12:00

- 5일(금) 참선모임
(매달 첫 번째 금요일)
- 6일(토) 물론대 종합사회복지관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9일(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16일(화) 지역정화활동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16일(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6일(금)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금요일)
- 27일(토)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토요일)

경남모임(055-266-0170)

11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매월 셋째주 수요일(11월 17일)
/ 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 / 말벗되

- 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 (11월 23일) / 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11/6, 13, 20, 27)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5시 (11월 4일)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은비네 외 10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11월 12일, 26일) / 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11월 5일, 12일, 19일, 26일)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11월 24일) / 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 / 구입문의 ☎(055)266-0170
 - 운영위원회 - 11월 9일(화) 19시 성주사

대구모임(053-753-8883)

11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맑은 세상 한마당 잔치 및 덕현스님 초청 강연
 - 한국 사회의 일원이지만 언제나 전체 속에서 소외되어 한켠에 존재하는 저소득 홀로어르신, 어린이,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시각장애인 등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여 한마당 잔치를 벌이고, 제2대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덕현스님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11월 26일 / 장소: 프린스호텔 별관 2층 리젠시홀 / 시간: 한마당 잔치 - 오후 5시30분, 초청강연 - 오후 6시, 만찬 - 7시30분
- 김장나누기
 -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배추, 무, 고추 등 각종 재료들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겨울에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의 겨울 밀반찬이기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장 나누기 봉사와 후원을 하실 분들

의 동참 바랍니다.

- 일시: 11월 30일 - 김장 양념 만들기 / 12월 1일 - 김장 버무리기 및 배달
- 자연문화유적 탐방
 - 장소: 창녕 화왕산 / 일시: 11월 7일 (일) / 출발장소: 오전 9시 만촌동 이마트 앞 / 준비물: 산행복장, 도시락, 간식, 개인용품 / 동참금: 1만 5천원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 나누기
 - 매주 수요일(3일, 10일, 17일, 24일) /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 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소리봉사 / 녹음봉사
 - 매주 월요일 - 개별녹음 / 정기모임: 매월 셋째 금요일(19일) 오후 7시 (예정)
- 룸비니동산 자원봉사 활동
 - 매월 둘째 토요일(13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 방문 자원활동
 - 16일(화)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황금복지관 주방보조 및 기타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2일) 11시부터
- 첫마음 정기 편집회의 / 둘째 토요일(9일) 오후 6시

광주모임(062-236-3129)

11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 법정스님 영상설법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월 1·3주 금요일(11월 5일, 19일) 오후 2시 법정스님의 영상설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법정스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금 각화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자 20명이 요일별로 조리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쌀, 양념류, 생필품 등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리시간: 오전 10~12시)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법정스님 책임기 모임(11월 대상도서: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 독서지도: 이신(통일사회연구소 소장) / 11월 23일(매월 지장재일) 오후 2시 맑고 향기롭게 광주 사무실
- 생활 속의 참선(예정)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지장왕사 법당



<동안거 결제 및 90일 관음기도 입재>

11.20(토)

세상은 모든 것을 바깥에서 구하지
만 참 나를 찾는 불자들은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동안거 결제일을 맞아 바깥
으로 향하던 마음의 눈길을 나에게로
돌려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오롯하게 정진해서 해제하는 날 더 맑
아진 마음으로 법회에서 뵙기를 바랍니
다. 동안거 기간에는 ‘관음기도’도 함
께합니다. 동참하실 분은 종무소로 신
청바랍니다.

- 결제: 11월 20일(음력 10월 15일)
- 해제: 2월 17일(음력 1월 15일)

<동안거 아침·저녁 좌선수행>

매일 진행하는 아침 / 저녁 좌선수행
은 수행 경험이나 수준에 상관없이 누
구나 동참하실 수 있으며, 시간에 맞
춰 입실하시면 됩니다.

- 시간: 아침 좌선 - 오전 7시~9시, 주
지 덕현스님 / 저녁 좌선 - 저녁 7시~
9시, 유나 지공스님
- 좌선수행 동참자를 위한 주지스님의
즉문즉답은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있습니다.
- 좌선을 처음 배우려는 분들에게는 주

말 선수련회에 먼저 참여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에서는 제
방에서 수행정진하시는 큰스님들을 모
시고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
번에 봉행하는 금강산림대법회는 49일
동안 매일 영가천도기도를 봉행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고승 대덕 큰스님들
의 초청법문이 펼쳐집니다. 길상사는
법홍스님(송광사 동당) 초청법회에 동
참합니다.

- 법회 참가일정: 2010년 11월 22일(월)
- 접수마감: 11월 18일(목)
- 동참 신청 및 문의: 종무소
(전화접수 불가)

<지장전 천일기도 600일 회향 및 700일 입재 안내>

지장전에서 봉행하고 있는 천일기도
의 600일 회향 및 700일째 입재가 이
번 달에 있습니다.

- 천일기도 600일 회향일:
11월 3일(음력 9.27)
- 천일기도 700일 입재일
11월 4일(음력 9.28)

<2011년 대입수능 백일기도 회향>

입시생과 그 가족들을 위한 수능100일 기도를 회향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여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원하는바 성취하기 바랍니다.

- 회향일 : 2010년 11월 18일(목)

<불교 입문 강좌>

불교가 궁금하고, 불교 공부를 시작하려는 초심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주간반과 야간반이 있으며 학과 일정은 길상사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개강: 12월 2일
- 시간: 주간반 - 매주 목요일 낮 2시~4시 / 야간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9시
- 기간: 3개월(12월 2일~2월 24일)
- 참고

- ① 배움터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컵을 이용해 주세요.
- ② 야간반 수강생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버스 출발 시간: 저녁 7시

버스 탑승 장소: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50m 직진, 동원마트 앞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지하철역으로 내려갑니다.

<1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및 기도>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토요법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설법전
- 삼천배기도 / 11월 13일(토) 8시 반
- 극락전 기도 /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6시
- 지장전 기도 /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6시
- 거사람 정기법회 / 1·3주 일요일 오후 1시 / 설법전
- 보현회 정기법회 / 매달 음력 초하루 / 11월 6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매달 셋째 월요일 / 11월 15일 오후 1시
- 지장회 정기법회 / 매달 둘째 월요일 / 11월 8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매달 넷째 화요일 / 11월 23일 오후 1시
- 보리회 정기법회 / 매달 첫째 월요일 / 11월 1일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도서관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소강당
- 청소년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도서관

“마음을, 세상을 맑히는

- 길상사 ‘맑은 음악회’”

국립국군교향악단이 들려주는 ‘맑은 음악’

이 땅을 지키는 군인들이 우리 마음까지 지키고 맑히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엄격한 시험을 거쳐 선발된 수준급의 정예 단원으로 구성된 국립국군교향악단이 그들입니다. 여태까지의 브라스 밴드와는 또 다른 품격있는 연주를 들려 줄 것입니다.

- 1부에서는 우리의 전통음악과 퓨전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김영옥’님의 판소리 : 심봉사 눈뜨는 대목
 - ‘김단원’님의 가야금 연주 :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 퓨전 국악앙상블 ‘다비’
- 2부에서는 국립국군교향악단과 솔리스트들이 연주합니다.
 - 메조소프라노 조윤희 : 뮤지컬 ‘명성황후’ 외
 - 바이올린 신동 윤정환 : 베토벤 ‘로망스’
 - 국군교향악단 : 오페라 서곡 외
- 일시 : 2010년 11월 14일(일)
오후 3시 30분 ~ 6시
- 장소 : 길상사 설법전



김치가 금(金)치인 달!

10월은 배추파동으로 온 나라가 근심과 걱정으로 보냈습니다. 배추 한 포기 1만 5천원까지 올랐으니 서민들의 가슴이 얼마나 팍팍했을까요. 비싼 배추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김치 대신 다른 것이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니 민심이 꽤나 흉흉했지요. 정부는 유통구조 문제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얼마간은 그 부담이 그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결식이웃 밀반찬팀도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매월 둘째 목요일에 370여 가구에 김치 3kg을 지원하고 있는데(그 외 단체 1곳도 지원함) 배추 값의 폭등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치 만드는 10월 14일까지 사무실에서는 정보와 인맥을 총동원하여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배추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발품을 팔아 시장을 돌아다니기도 했지요. 다행히 시간이 갈수록 배추가격이 하락하여 우려할 만한 최악의 예상은 피해 무난히 김치를 담글 수 있었습니다.

조리장에서 김치가 담가지는 걸 보면서 김치가 정말 ‘금(金)치’임을 실감했습니다. 이 김치를 약속대로 결식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인지 봉사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돌았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결식이웃들은 더 힘들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먹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배추와 더불어 쌀과 무 등 서민들의 기초 먹을거리가 안정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